

로컬플러스



비리톤 김동규 군산예술의전당 공연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가 군산시민을 찾아온다.

오는 9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비리톤 김동규가 '당신을 위한 노래 With 김동규'란 티이틀로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당신을 위한 노래'는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국악 연주가들이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비리톤 김동규와 소프리노 김지현, 앙상블밴드 14인이 함께 오페라 아리아, 가곡, 팝송 등 그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낼 잊지 못할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티켓비는 공연 당일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1인 2매씩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군산시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첫 번째 순회교육으로 지난달 30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의료 이용방법, 급여일수 산정방법, 본인부담보상금, 상금, 노인위탁증명, 요양비, 입원출院증명, 비자금, 의료급여연장승인, 선택병원, 상해요인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직원 아름다운가게 성금 전달

군산시 전체 직원들과 아름다운가게(나윤·명산점)는 지난달 30일 지역 내 소이당뇨증후군이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에게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군산시 청원들이 이 아름다운가게(나윤·명산점)에 참여해 모은 기증품 1600여점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나눔마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이 성금은 소이당뇨증후군 환아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의산행복나눔마켓 이동마켓 운영

의산행복나눔마켓·뱅크(대표 김도진)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산 홍등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행복나눔 이동마켓'을 운영했다.

이날 삼기, 홍동면 지역의 행복나눔마켓 이용자는 이동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골랐다. 몸이 불편하여 직접 가져가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민족도를 높였다.

김도진 대표는 "이용자들이 기부식품과 생필품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후원해준 기업과 단체(개인)에 감사드리고, 후원된 물건은 꼭 필요한 분들에 제공해 따뜻한 나눔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원광대, 자산운용대상 우수상

82개 대학기금 대상 의사결정체계·기금 확대·자산배분 심사 결과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3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기금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전문적인 자금운용시스템을 마련해 대학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2014년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마련한 시상제로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시사진흥재단 등에서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82개 대학기금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체계(5개 문항), 자산운용체

계(4개 문항), 기금 확대 및 정보제공 노력(3개 문항) 등 운용체계 및 자산배분 현황을 심사한 결과 송실대(대상), 서강대(최우수상), 원광대(우수상)가 각각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기금 확대 및 정보제공 노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원광대는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해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연간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해 기부금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동문과 원광대 후원의 집을 비롯한 지역사회 경영인 모임 등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특히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기부금

구조가 큰 의·약학 분야 단과대학 학장들로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특성화사업과 LINC 사업, 창업선도대학에 이어 프리임사업 대형에 선정돼 구성원의 사기가 충만한 가운데 기금·자산운용대상 대학기금부문 우수상까지 받아 영광"이라며, "기금의 투명성·안정성·수익성·합법적성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모범대학으로 남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농어촌공사 명의 빙자 투자자 모집 주의

산업단지 공사 참여 내용 사실무근…특정단체와 어떠한 납품계약도 없어

새민금사업지구 인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를 빙자한 특정단체의 활동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민금사업지구 농지부양 및 건설공사 참여 알선 등 명목으로 투자자 모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지 조성공사 완공예정인 2020년 이후 대규모농업단

지 조성을 위해 농업회사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와 일침에 따른 농지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새민금사업지구 공사현장에서 특정단체에게 어떠한 납품계약이나 권리한계도 없었으며, 명의를 빙자한 투자자 모집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령에 관한 관계도 없으며, A단체가 사용 중인 명칭만으로 공사 산하기관 또는 협력단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새민금사업지구 공사주진과 관련하여 A단체와 어떠한 협의이나 계약관계도 없었으며, 명의를 빙자한 투자자 모집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우리들의 영웅 강희중' 추모연극 공연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최근 익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우리들의 영웅 강희중 추모연극을 공연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연극공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익산의 호국영웅 강희중 상사의 스토리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추모연극으로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우리고장 호국영웅일리 기프로젝트 일환으로 2013년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인 강희중을 연극을 통해 시민과 만나고 그분의 공헌을 흥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우리고장 출신의 호국영웅을 통해 영향·애향·애국심을 함양하고, 호국영웅의 삶과 나라사랑정신을 국민들이 본

이념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희중 상사는 익산시 망성면 출신으로 1950년 8월 18일 6.25전쟁 때 국군 제 18연대 1중대 소속으로 전투가 치열했던 기계연대 탈환전에서 적진에 침투해 사전에 요지를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격멸해 북한군의 부산방면 진출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적군사살 124명, 포로 17명, 무기와 탄약을 다수 노획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에 침투해 사전에 요지를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격멸해 북한군의 부산방면 진출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적군사살 124명, 포로 17명, 무기와 탄약을 다수 노획했다.

최경옥 센터장은 "익산시가 3D프린팅산업의 호남거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여성 전문 인력 육성 및 미래 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여성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익산새일센터 3D프린팅기능사과정 직업교육훈련 수료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센터장 최경옥)는 지난달 30일 리즈트엔디자인에서 수료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과정은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3D프린팅 전문 강사 및 주얼리 디자이너를 목표로 모델링과 3D프린팅 주얼리 제작 실습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난 4월부

터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해왔다.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교육생들은 3D프린팅 전문강사 시험에 응시하여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북권 최고의 합격률을 보였고, 2일에는 3D프린팅 제작 마스터 자격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수료식에 참석한 유모씨는 직접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모델링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3D프린터로 출력된 결과물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옥 센터장은 "익산시가 3D프린팅산업의 호남거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여성 전문 인력 육성 및 미래 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여성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박동열 평화지구대장에 감사패

36년간 경찰공무원 성실 근무·교통안전 혁신 공로로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익산경찰서 소속 박동열 평화지구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지구대장은 1980년 8월에 경찰에 입문하여 3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게 근무했으며, 익산경찰서에서 재직 중 익산의 교통 안전을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했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면 횡동요교~충남 강경 간 23번 국도 25km 구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적극 설득해 이를 성과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던 험밀 다성교차로를

임체교차로로 변경하는데 큰 기여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개통한 다

송입체교차로는 2011년 당시 구자명 지청장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익산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걸실을 맺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박동열 평화지구대장은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생각지도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뿐만 아니라 감사패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율 시장은 "익산을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했던 일들이 지역발전에 큰 밀가루가 되었다"며 "36년간 공직생활을 훌륭히 마친 것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익산소방서 최신형 굴절사다리차 운용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등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형 굴절사다리차를 도입, 직원들의 조직능력·숙달 및 현지 적응 훈련을 거쳐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한 굴절사다리차는 최고 작업높이가 기존 차량 27m보다 9m가 향상된 36m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12층 높이까지 전개할 수 있고, 바스켓의 최대 허용하중이 350kg으로 한 번에 요구조차 2~3명을 구조할 수 있다.

또한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무인봉수가 가능하고, 4단 직진과 1단 굴절의 혼합형태로 기준차

량에 비해 현장 접근성이 우수해 아파트·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익산소방서 강원석 서장은 "기존 보유한 52m 고기다리차와 이번에 배치한 36m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해 고층건물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우리도 소방차량 교체 계획에 따라 구급차 4대 및 소방펌프차 등 지속적으로 소방차량을 보강·비치해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을 2017년도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부안해양경비안전서 업무협약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관한

최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우영)과 전북 부안 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영에 관한 MOU(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권역 닥터 헬기 운영 병원인 원광대병원과 부안 해양경비안전서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인천하고 신속한 환자 후송에 관한 협약이다. 응급환자 발생 시 정보 교류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후송 및 진료·의료지원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닥터 헬기 이용은 운영 지침에 따르되 원광대병원은 헬기 이용 요청 핫리인을 제공하고, 착륙장 인근에 인접면리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엠플란스를 제공한다. 한편 부안 해양경비안전서는 중증응

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핫리인을 이용, 이송 요청을 하고 협력기관 내에 담당자 지정과 교육 헬기 이용 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이다.